

■ 쿠바와 미국의 갈등: 21세기의 문턱에서

에스테반 모랄레스

미국의 수많은 이데올로그들은 1959년에 쿠바와 미국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장차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쿠바를 사전에 속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한 19세기 초부터(1805~1823)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 시기, 미국이 대 쿠바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쿠바와 피노스 섬을¹⁾ 비롯한 부속 도서를 점령하여 신흥 국가 미국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권력엘리트들의 지리학적 개념에 따르면, 쿠바는 미시시피 강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섬이었다.

이런 생각은 거의 예외가 없었으며, 미국의 국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백 년 넘게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쿠바가 투쟁해온 대상은 당시의 정치세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쿠바 군도를 항상 미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여 온 지배적인 정치문화까지 포함되었다. 그 결과 독립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익은 과일론’에²⁾ 나타난 바람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쿠

1) 현재는 육지가 되었다. 피델 카스트로도 1953년 이곳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 1823년 미국무장관 존 퀸시 애덤스가 주장한 대 쿠바 정책론. 쿠바는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미국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론으로, 먼로 독트린의 형성에 기여했다.

바를 스페인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익은 과일론’은 식민기간 내내 쿠바에서 발생한 사건들에서 미국 정치인들의 태도를 지배하며 쿠바에 대한 미국의 활동에서 우선시되었다.

토머스 제퍼슨(1801~1809)부터 윌리엄 매킨리(1897~1901)와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1909)까지 거의 모든 미국 정부가 이 정책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결국에는 바라던 바처럼 쿠바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스페인의 쿠바 식민통치 기간에 무슨 일을 하였을까?

- 1) 적어도 6회에 걸쳐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매입하려고 시도하였다.
- 2) 쿠바와의 경제관계에서 스페인의 위치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 신식민지 관계를 맺었다.
- 3)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독립과정의 전철을 따르는 것을 대놓고 반대하였다. 1826년에 좌절된 시몬 볼리바르의 노력을 상기해보라.
- 4) ‘익은 과일 독트린’은 곧 ‘먼로 독트린: 아메리카인들을 위한 아메리카’로 구체화됨으로써, 특히 영국의 의도에 맞서 자국의 입장을 강화했다.
- 5) 미국 내 쿠바 독립운동가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국지사들의 활동을 고발하고 원정을 좌절시키는 등, 공공연하게 스페인에 협력했다.
- 6) 차후 합병을 위한 쿠바 내부의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쿠바에 자치권을 부여하라고 스페인에 압력을 가했다.

- 7) 쿠바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해방군, 국민의회 등과 같은 쿠바 내의 독립파 기구들을 체계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리고 쿠바를 인정하기에 앞서 차관을 통해 해방군의 해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려고 했다.
- 8) 쿠바 독립군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메인호 폭발사건을 일으켰다. 모든 게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거나 혹은 적어도 계획된 무책임한 부주의의 산물이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 9) 미국 의회에서 승인한 일명 ‘합동결의’를 조작하여 개입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만들었다.
- 10) 해방군과 같은 조력자들을 적으로, 식민 정부의 자치주의 자들이나 관료들 같은 스페인인들을 동맹자로 간주하게 만든 전쟁을 일으켰다. 협력한 쿠바 무장세력의 산티아고 입성을 불허했다. 이들은 차후에 이러한 불명예를 알게 된다.
- 11) 쿠바의 우국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스페인이 쿠바를 포기한다는 파리조약이 체결되었다.
- 12)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 곤살로 데 케사다와 같은 일단의 합병주의자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강요하고, 약점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해방군과 쿠바혁명당을 해산하였다. 에스트라다 팔마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후원을 업고 쿠바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 13) 마지막으로 파멸적인 ‘플랫 수정안’을 강요하여 쿠바의 모든 대외관계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미국은 쿠바 합병에 실패하였다. 스페인은 매번 쿠바의 매각을 거부하였고, 세 번의 독립전쟁이 쿠바 국민의 정신과 육체에 남긴 결과는 쿠바가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막았다.

시나리오가 수정되기 시작하다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강탈하기 위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쿠바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이후 자신들의 이익에 합치하는 공화국을 설계하였던 1898년과, 농업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민족해방혁명이 쿠바에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이 60년 이상 적용하여온 관계 모델이 바뀌기 시작한 1959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쿠바공화국은 인민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개조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쿠바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쿠바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심지어 하찮은 사안까지도 워싱턴이 결정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이해와 수용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성공한 혁명에 직면한 미국

쿠바의 대미관계에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쿠바혁명은 아이젠하워 집권 2기(1953~1961)의 막바지인 1959년에 승리하였다. 조지 케년의 유명한 각서 NSC-68과 ‘트루먼 독트린’의 기억들과 아이젠하워 정권이 받아들인 다른 유산들에서 기원하는 냉전의 모든 도구들은 당시의 정치적 파노라마를 변화시켰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 미국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부터 플렌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1959년 1월 이후의 쿠바와는 화해의 조건에 있지 않았다. 혁명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 쿠바 정책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즉 당시에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와 화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 혁명세력의 권력 획득을 좌절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였던 대통령 보좌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를 “그럴듯한 후보”로 대체하기 위하여 1958년에 전개되었던 적대 정책이 왜 이제는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당시에 이러한 정책의 핵심 지침은 “그들의 권력을 획득을 막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권력의 공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반혁명 활동은 쿠바혁명이 승리하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반혁명 활동은 쿠바에서 혁명세력이 정치권력을 공고화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실천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음모와 적대적 행위들은 매우 광범위해서 거의 50년 흐른 뒤에도 당시에 아이젠하워 정권이 실행하지 않았던 쿠바 공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실행은 실제적으로 없다. 즉, 미국 정부가(지미 카터 정권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쿠바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치적 매트릭스의 핵심은 아이젠하워 정권 때 수립되었다.

케네디의 정책

케네디 정권 초기, 대 쿠바 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선거기간 동안 케네디는 반혁명주의자들을 “자

유투사들”로 평가하며 그들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아이젠하워로부터 물려받은 침공계획을 수용했다.

당시 CIA는 침공계획을 지휘하고, 가능한 한 케네디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며 최종적으로 쿠바에 해병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교활한 계략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1961년 1월 3일 미국은 대 쿠바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것 역시 전 정권 때부터 바라던 바였다.

케네디는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계획만 따른 게 아니었다. 그는 백서를 통해 쿠바를 “소련의 위성국가”, “배반당한 혁명”, “현존하는 서구의 위협”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보타주 정책, 해적 공격, 혁명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히론 침공[미국에서는 ‘피그스만 침공’이라고 부르는 사건이다 - 주]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결국 케네디 정권에게는 명백한 실패였으며, 이 사건을 통해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대한 자신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고 측근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론 침공은 쿠바혁명과 대립에서 미국의 패배이자, 케네디가 CIA에 가지고 있던 소박한 시각 때문에 악화된 제도적 장치(특히 국방에 대한)의 완패였다. 수직적 권력구조는 기능하지 못했고, 펜타곤을 통해 침공준비를 감독하려던 케네디의 계획 역시 항상 CIA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당시 케네디가 히론 침공 계획을 유산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패배는 엄청난 개인적 굴욕이었고, 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쿠바 지도부는 완패한 케네디가 모종의 대 쿠바 행동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1962년 10월 말에 미군의 지원을 받는 무장침공의 예정일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히론 침공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쿠바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론 침공 이후, 쿠바에 대해 실행된 가장 큰 전복계획인 ‘몽구스 작전’은 약화도구로 기능하였고, 대규모 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쿠바를 괴롭히는 이러한 치명적인 위협들이 없었더라면 중거리 핵미사일이 쿠바 방어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균형을 찾으려는 바람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이 사회주의권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핵능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서는 쿠바에서 미사일 위협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흔히 ‘미사일 위기’라고 부르는 사태는 미사일이 쿠바에 있는 동안, 즉 당시 로버트 케네디국무장관이 언급한 13일 사이에 시작되고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이고, 미국의 대 쿠바 공격 행위가 축적된 결과였다.

미사일 철수를 위한 대미 협상에서 쿠바를 배제시킨 것은 소련 지도부의 도덕적·윤리적·정치적·전략적 실수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련은 미국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작은 나라이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동맹과의 관계, 즉 쿠바와 소련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쿠바 지도부가 그들에게 가졌던 신뢰를 유지했을 것이다. 어쩌면 위기가 가져온 정치적 대결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핵무기일지라도 그리고 미국 영토와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쿠바는 정치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었다.

비밀리에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철수 협상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피델 카스트로가 처음부터 주장한 쿠바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면, 10월 위기의 종결은 쿠바와 미국 간 대립의 최종결과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고, 케네디가 이러한 대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징후들이나 10월 위기를 가져왔던 정치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케네디는 위기에서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흐루시초프가 패배한 것임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이해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듯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케네디는 암살당하기 직전에 쿠바와 적대경험의 교훈을 깨닫고 새로운 화해의 방안을 모색할 만큼 눈치가 빨랐다.

두 나라는 거의 5년 동안 적대적이며 위험한 대립상태에 있었다. 초장부터 혁명을 뒤엎으려는 아이젠하워의 엄청난 노력, 쿠바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혁명 집단, 히론 침공, 쿠바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서구에서 배제시키려는 지독한 국제적 캠페인, 잔혹한 경제봉쇄, 몽구스 작전과 10월 위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쿠바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이 승인되었다. 미국 해안에서 90마일 거리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언론인 장 다니엘을 파견하여 피델 카스트로와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 케네디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1963년 11월 26일 아바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케네디는 공모의 결과로 델러스에서 암살당했다. 당시에 케네디는 정말로 쿠바혁명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쿠바와의 새로운 화해 방안을 모색했을까? 아니면, 혁명을 전복시키려는 본질적인 목적을 저버리지 않은 채 쿠바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전략의 기획방법을 탐색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에서 우리는 피델 카스트로 진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힐 수도 없다. 아마도 미래에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 무언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만 케네디의 행동이 전임자, 다른 민주당 정권, 즉 제임스 카터 정권(1977~1981)와 같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나중에 살펴보겠다.

쿠바와 미국 간의 대립을 분석할 때 피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사건들이 1959년부터 1963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케네디의 죽음이 새로운 국면의 시작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분명한 이유들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짧은 글에서 이후의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매개변수 혹은 역사적 상수를 통해서 우리는 개괄적으로나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 상수는 다음과 같다.

- 1) 적대성은 항상 두 나라 간 갈등의 근본적인 상수였다.
- 2) 미국의 정권은 모두 대 쿠바 정책에서 자신들만의 특색을 남기고 싶어 했다.
- 3) 정책의 초점은(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대립 상황에서 사용할 수단이나 도구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항상 중요한 요소였다.
- 4) 대 쿠바 협상이 미국에 이익이 될 때만 이념 장벽이 깨지고 두 나라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 5) 일명 ‘쿠바 공동체’는 두 나라가 모종의 접근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느낄 때는 항상 관계 개선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짧은 공간을 할애해서 이러한 상수 중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적대 정책

카터 정권을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그 어떤 정권도 아이젠하워 정권과 케네디 정권에서 전개된 적대행위를 넘어서지 못하였을 만큼 적대성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었다.

60년대 이후 군사적 요소는 쿠바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³⁾과 같았다. 적대성은 재산과 인명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적 사보타주로 나타났지만, 침공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정권이 대 쿠바정책에 항상 자신들만의 특색을 남기고 자 하였지만, 거의 모든 정권의 정책에서 적대성이라는 요소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카터 정권은 미국과 쿠바 간 갈등에 대한 모든 협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역설적이지만 레이건 정권 때도, 이 정권의 적대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들 중 두 가지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이주와 남아프리카 갈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레이건은 당시의 이해관계가 걸린 개별 사안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러한 협상이 양국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3) ‘신변에 따라다니는 위협’을 의미하며, 왕의 행복을 칭송하는 다모클레스를 왕좌에 앉히고 그 머리 위에 머리카락 하나로 칼을 매달아 왕의 신변의 위협을 가르친 고사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카터의 재임기간은 협상국면을 넘어서 갈등에서의 변화를 상징하였다. 단지 개별 사안만 논의하였지만, 레이건 시절과는 달리 정치적 상황을 호전시키려 노력하였고, 특히 신뢰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두 나라의 협상경험은 특정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부정적이고 극복되지 않는다면, 합의에도 결국 악영향이 미친다. 1977년의 합의 가운데 오직 1977년 5월 1일에 서명하고 같은 해 9월 1일에 발효된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만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1977년 카터 정권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양국의 문제 해결 방안을 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영해, 어업 등과 같은 개별 사안의 협상과 더불어, 무리하지 않으며 서로 다가섰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신뢰와 노력의 분위기 조성이었다.

카터 정권은 양국 관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전개하며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터 재임기간(1977~1980) 동안 양국 정부의 대화는 전략적인 의견 일치를 찾으려는 양측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진전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카터 정권이 양국 관계의 변화를 보였지만, 쿠바의 국제 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건 달기는 결국 관계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현재까지 카터 정권만이 양국의 관계개선이 가능한 유일한 미국 정권이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좌절되었다.

정책의 초점

만약 우리가 양국이 대립해 온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정책의 초점이 각각의 역사시기에 따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식민시기 내내 미국의 활동은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 1) 어떻게 해서든 쿠바가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는 것 막기. 계속해서 스페인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어야 했다.
- 2) 쿠바를 미국에 팔거나 쿠바에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스페인을 괴롭히기.

•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쿠바 사회에 내부 움직임에 집중하였다. 1958년 12월까지 폴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세력의 투쟁이 승리를 분명히 하며 진전될수록 아이젠하워 정권은 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켰다. 차기 정권에게 쿠바는 대외 정책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이익도 대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이 두 근본적인 시기에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독재정권을 도우며, CIA요원들을 혁명조직에 침투시켜 상황을 미국 정권에 알리도록 한 첫 번째 시기.
- 2) 바티스타가 혁명세력의 압력에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미국 정권이 민·군 임시정부에 의한 바티스타의 대체, 쿠데타 실행, 군사침략 단행과 같은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였던 두 번째 시기.

•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이 시기에 아이젠하워 정권(1953~1961), 케네디 정권(1961~1963), 초기 존슨 정권(1963~1969)은 쿠바의 국내 상황에 집중하였다. 특히 아이젠하워는 “혁명세력의 권력 획득을 좌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적어도 이 세력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시기와 케네디 정권 아래에서는, 쿠바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위한 모든 활동의 이해관계와 전개에 따른 결과였던 10월 위기와 더불어 내부 공작들, 히론 침공의 실행, 몽구스 계획, 반혁명조직들 지원과 같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혁명에 반대하는 그러한 내부 공작은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도 1965년에 내부에서의 반혁명이 실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쿠바의 내부변화를 위한 미국 정책의 초점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쿠바혁명이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외부충격에 대해 당시까지 미국 측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백서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과 미주체제의 양립불가를 정당화하며, 1962년에 쿠바는 미주체제와 양립할 없다고 선언하고 미주기구에서 축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성적이고 공격적으로 벌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적대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적대적인 특성은 내부에서의 반혁명 무장활동에 있었고, 그 근본목적은 쿠바의 혁명정부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존슨 정권(1963~1969)의 마지막 몇 년부터 레이건 정권(1981~1988)의 마지막 2년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이 기간 동안, 쿠바혁명의 대외적인 혁명적 행동주의는 미국이 쿠바의 국내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쿠바의 활동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었다. 닉슨 정권(1969~1974), 포드 정권(1974~1977), 카터 정권(1977~1981)은 쿠바의 국제적 행동주의를 매우 가까이에서 추적한다는 점에서 특히 적대적이었다. 정책의 이러한 대외적 초점에 더 주목하면서도 카터는 이 적대성과 쿠바와 화해 모색을 결합하였다.

볼리비아에서 체의 활동과 아프리카에서 쿠바의 활동, 1975년부터 강화된 중앙아메리카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쿠바의 지원과 비동맹운동과 77그룹에서의 쿠바의 행동주의는 이 시기의 정책적 초점이 국제무대에서 쿠바의 존재에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70년대 초부터 쿠바는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국내적으로도 내부로부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특별한 요소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쿠바에 요구되었던 조건들이 나타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소련과 관계 단절
- 2) 혁명운동, 특히 중앙아메리카 혁명운동에 대한 지원 중단
- 3) 아프리카에서 군대 철수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쿠바혁명이 이미 내부에서 높은 수준으로 공고화되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쿠바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국제

적인 행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 부여는, 아프리카에서 쿠바의 제2단계 활동부터 특히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쿠바를 따라다녔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갈등, 비동맹운동에서 쿠바의 주도권 활동, 소련과 협력 강화가 문제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 1986년부터 2008년까지

80년대 중반부터 쿠바와 미국은 다시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 1) 점진적인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
- 2) 쿠바의 경제위기. 공식적으로는 1989년에 시작되었지만 사회주의권, 특히 대 소련 무역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7년부터 진행되었다.
- 3) 1989년의 경제위기 중에 터진 부패와 마약거래에 대한 ‘제1재판’과 ‘제2재판’
- 4) 쿠바인민의 생활수준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친 국내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곤경

특히 ‘제1재판’ 및 ‘제2재판’과 국내 경제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부문에서의 평가가 이뤄졌고, 이러한 정책들은 쿠바가 그러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레이건 정권 후반부터 아버지 조지 부시 정권 초반까지) 정권의 정책부문에서는 쿠바에 상관된 두 번의 국내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된 경제적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쿠바의 권력상층부에 닥친 정치 영역에서의 위기였다.

최근 30년 내에 혁명을 전복시키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 쿠바에 닥쳤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나타났다. 당시 쿠바사회의 부정적인 내부 역학관계는 미국의 모든 정책적 행동들의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이뤄졌다.

- 1) 국제사회에서 쿠바가 다른 우방이나 시장을 찾을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켰고,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았다.
- 2) 1992년에 “토리첼리 법안”을 승인하였다. 동시에 80년대에 이뤄진 제3국에서의 미국 기업의 해외지사와 쿠바 간의 무역을 금지시켰으며, 소위 “내부에서의 평화로운 전복”을 진전시키기 위한 움직임, 메커니즘, 수단들을 제공하였다.
- 3) 쿠바의 최고 권력자들이 마약거래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캠페인을 벌이며, 정부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과 혁명의 정치적 지도력을 철저히 손상시켰다.
- 4) 미국의 정책을 쿠바혁명의 잠재적 전복이라는 긴급 상황에 맞췄다. 이는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를 모델로 만들었다.
- 5) 쿠바의 국제무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1992년에 토리첼리 법안이 나왔다면, 헬름스 버튼 법안이라는 일괄 입법안의 본질적인 목적은 쿠바가 외국자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 6) 동시에 ‘내부에서 평화로운 전복’ 모델에 따른 내부의 반혁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주제들이 쿠바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요구들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7) 아들 조지 부시 정권의 집권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의 붕괴와 함께 쿠바는 테러리즘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의해 전개된 가장 적대적인 전략의 대상으로서 비난을 받으며 60곳의 '세계의 어두운 구석들' 중 하나가 되었다. 더도 말고 베트남 침공이나 10월 위기만 기억하자.

8) 2004년 파웰 위원회에서는 쿠바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는 문건을 발표했는데, 차후에 이 문서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개입으로 보장되었다. 다른 시도들도 이미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비밀 조항을 담고 있고, 쿠바 정권의 교체 전략에 따라 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행 과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쿠바사회 내부의 역학관계들을 혁명을 전복시키기 위한 행동, 메커니즘, 도구들의 중심에 놓는 시각이 미국 정책 안에게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며 강화되었다. 아마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을 사건들의 목록이 존재한다. 그것들 없이는 쿠바와 미국 간의 갈등을 오늘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1) 쿠바사회 내부의 역학관계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계속해서 맡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
- 2) 쿠바혁명을 헐뜯는 미국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쿠바의 정치 지도부가 전개하는 쿠바 정치의 대외적 기획을 어디서든, 어떤 조짐이든 추적하는 미국의 집요함.
- 3)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 4) 미국 정권에서 쿠바에 대한 정책의 도구, 모든 장비와 제도, 적대적인 유일 기조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쿠바정책 기획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 5) 여행을 어렵게 하거나 금전적인 제재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무역관계에 있어 투자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쿠바봉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행동. 헬름스 버튼 법안은 봉쇄정책의 관리권한을 대통령에게서 의회로 옮겼다. 그러나 행정부는 무역조건의 강화와 운송 및 양방향 여행의 제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미국 의회를 쿠바에 적대적인 항구적 입법도구로 만드는 미 행정부와 쿠바계 미국인 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동맹.
- 7) 쿠바에 대한 경제적 적대성을 초국가적으로 심화시키려는 변함없는 관심.
- 8) 미국 혹은 해외에서 쿠바혁명에 대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쿠바 내부의 반체제 세력과 연결시키는 등 미국 내 쿠바 공동체의 극우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미국 정권의 지속적인 행동.
- 9) 주로 '라디오 마르티'와 'TV 마르티' 등을 통해 쿠바혁명에 반대하는 선전활동을 꾸준히 유지.
- 10) 유럽 국가들과 같은 자신들의 우방과 이념적, 정치적 공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 경제 분야에 존재하는 쿠바정책에 대한 의견불일치를 넘어서서 쿠바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 전략에서 타협을 유지하려는 노력. 쿠바에 대한 정책 조정을 통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체코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쿠바를 괴롭히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쿠바혁명은 싸우고 있고 앞서 살펴본 모든 시나리오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회복하고 특히 자신들의 역사적 뒷마당에서 잃어버린 공간들을 되찾으려 한다는 점과 쿠바는 이러한 적대적 전략 안에서 두드러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와 상황이 꽤 달라졌다. 메커니즘은 미국이 계획하였던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적대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쿠바는 스스로 방어하였다. 미국은 하나의 세상을 위해 쿠바에 대한 정책을 세웠다. 만약 그것이 쿠바를 변화시켰다면 쿠바는 지금 살아남아 그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날 쿠바에 대한 정책 때문에 고립된 것은 미국이다. 반면에 쿠바는 총체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워가며 진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기를 앞세워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하려 하며 최근에 (서구의 바다를 돌아다닐) 제4함대를 창설한 미국의 변함없는 고집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미국 극우세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이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쿠바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미지수를 열어놓았다.□

[김동환 옮김]

에스테반 모랄레스(Estebán Morales) - 쿠바 출신의 학자, 쿠바와 미국 간의 갈등문제 전문가.

이 글의 원제는 “El conflicto Cuba - Estados unidos desde el umbral del siglo XXI. Algunos antecedentes históricos”이다.

출처: <http://www.cubanow.net/pages/loader.php?sec=35&t=2&item=6091>
